

# 국민의당 전주후보자 필승 합동 유세

### 김근식 통일위원장 “전북 국민의당 정착 이유는 무능한 더민주 때문”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3일 국민의당 전주선거구 후보들은 전주관광호텔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국민의당 후보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후보간 합동 유세를 펼치는 등 탄탄한 팀워크 때문.

당초 권노갑 고문도 합동 유세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박주현 최고위원, 박상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재석 장애인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합동 유세에 참석 전주갑을병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 사격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능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 91%의 지지를 보내줬지만 정권교체에서 실패했다. 또 책임을 져야 했지만 친노 세력들의 패권집계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아당을 바꿔야 한다. 힘있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정권 교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아당이 바로 설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포부를 지극했다.

이어 회견문 낭독에 나선 김광수 후보

(전주갑)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당 후보가 선택되지 않으면 호남 차별은 계속될 것이며 변방에 머물 것이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올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세환 후보(전주을)는 “지난 2007년 이후 친노패권주의는 이어져 왔다. 또 친노 아니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고 전북은 오히려 선당 후사, 살신성인을 강요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호남정신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다. 호남을 차별하지 말라는 소리다. 영남과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전주병)는 “호남에서 광주는 무시 당하지 않는다. 또 친노세력이 광주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반면에 전주는 친노 패권정치의 하청기이다. 더불어민주당 3명의 후보가 친노세력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다가 역풍이 부니까 아니라고 한다면서 ‘전주도 광주처럼 전주시민, 전북도민 자존심을 세우는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전주는 1등기는 맛의 도시다 그러나 정치를 보면 전주 맛을 잃었다. 매울때는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맛을 잃은 전주를 되찾을 것이며 국민의당 3명의 후보가 나선 이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국민의당 지도부 총출동 익산지역 선거지원 유세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경 기호 3번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한수(익산갑), 조배숙(익산을), 익산시장 후보 정현을, 전북 도의원 4선거구 박종열 후보 등 격려를 하기 위해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및 지도부 총 출동을 해 합동유세 지원 및 이한수 국회의원 후보의 개소식 참석을 통한 녹색바람을 일으키는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국민의 당 총 지도부는 이한수(국회의원 익산갑), 조배숙(국회의원 익산을), 정현을(익산시장), 박종열(전북도의원 익산제4선거구) 후보 등을 격려하고자 익산갑지역을 우선 방문해서 녹색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선택했다.

이날 모현동 국민은행 앞에서 펼쳐진 국민의 당 지도부 선거지원 유세에 수많은 익산시민과 각 사 언론인들 및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박지원, 김광영 임내현 의원과 김근식 교수가 함께 지원유세를 펼쳤다.

거리합동유세 이후 국민의 당 지도부는 익산갑지역 이한수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국민의 당 지도부인 안철수 공동대표는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한수의 익산지역 후보들을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소개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 후보들 토론회 불참 비난의 목소리 커져

### 도내 김제·정읍·고창 선거구 등에서 참석 거부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 공약등 알권리 침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각 정당 후보들의 사전 정보에 대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에 비난이 일고 있다.

후보들의 전문지식과 정책공약 등 검증을 하고 싶은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전주 KBS 라디오는 지난 1일 김제 부안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중희 후보가 전날인 31일 갑작스런 불참을 통보해 다른 후보들 로만 토론회가 진행됐다.

청취자들의 약속이 있던 터라 토론회를 취소할 상황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김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후보는 지난날 28일 JTV 방송토론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방송국에 대체 방송을 편성해 하는 혼란을 야기 시킨 바 있다.

이후 서야까지 쓴 김 후보는 31일 다시 한 번 JTV 방송토론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해당 토론회가 무산된 바 있다.

김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지역신문 주최로 진행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일부 영상이 공식선거운동기간 첫 날인 31일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포된데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방청객이 직접 촬영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이 언론사에서도 녹화 영상을 게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파적인 내용으로 편집된 영상이었으므로 보았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정읍고창 선거구에서도 일부 후보자 불참이 발생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라일보와 전북CBS 등이 공동주최한 정읍고창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무소속 이강수 후보가 전날인 24일 불참을 통보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당초 토론회에 참

석하기로 서약까지 작성했으나 토론회 전날 저녁 보좌진을 통해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불참이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토론회 당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 토론회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선거운동도 아침 인사정도만 하는 형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후보들의 토론회 불참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는 예비정치인으로서의 도의와 책임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는 토론회 참여 시 잘못된 부분이 편집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는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폭거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설 용기가 없다면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 4.13 선거 RUN·RUN·RUN

### 전희재 후보, 평화동 일대 도시재생 선진 모델 도입

새누리당 전희재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는 “지난 15년간 끌어온 전주교도소가 셋백방식으로 신축이전이 결정된만큼 임여부지를 체육시설, 녹지공간, 문화공간과 현 건물 일부를 영화 세트장 학생 교육현장 등 통해 리사이클링파크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화동 일대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신축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기존 교도소 일부를 영화나 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한 교육장 등 유럽식 도시재생의 선진모델을 도입, 관광객을 유치해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전희재 후보는 “기존 교도소 건물 및 부지의 재산권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달려있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힘있는 여당국회의원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주와 개발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신축시설 재원조달방식은 국민체육기금 및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비의 매칭펀드는 최소로 할 계획이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 최형재 후보, 김종인 대표와 합동유세

최형재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전주을)는 지난 1일 삼천동 농수산물시장과 전주우체국 사거리 유세를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업의 횡포에서 영세상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겠고 지역별 특화 상품으로 보다 많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최 후보는 모래내 시장으로 이동해 김종인 더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합동유세를 펼쳤다.

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고 사람과 정체가 준비된 유일한 정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불어주면 강력한 야당,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보답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최주만 후보, ‘희망 청년 성장 지원 조례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최주만 후보(전북도의원)는 1일 “전라북도 청년 문제인 일자리와 창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희망 청년 성장 지원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청년시절 꿈을 흘리며 돈을 벌어난 사람만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청년 취업의 애환을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지역 유세활동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선되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의 64%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인 현실에서 청년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지원 조례 공약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을 지켜온 어른으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행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기초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 청년 성장 지원 조례’를 꼭 만들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라북도를 꼭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특별취재반



### 박종길 후보, “통큰 정치 변화의 기회 주시길 호소”

새누리당 기호1번 익산을지역 박종길 국회의원 후보(이하 박 후보)는 영등동 인디안 사거리 중소 상공인의 밀집지역에서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 첫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유세차량을 앞세워 거리유세 중 사이사이 인근 상가와 출근길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다가와 인사를 나누며 “던던 올림픽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에 보답으로 기쁨을 안겨 국위를 선양했듯이”, “이젠 고향 익산발전에 봉큰 정치!를 통해로 비해서 현신봉사 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반갑습니다 등 시민들의 귀에 익숙한 “좋은 날이 올거야 잘 살아보세 노래와 「도전 개전」으로 잘 알려진 향토가수 김 군(익산시 부송동 출신)과 함께했다.

/특별취재반



### 박종열 후보, “슈퍼맨이 돌아왔다” 슬로건 내세워

최근 코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전라북도 익산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한 박종열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영등동 전차랜드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슬로건은 2010년 최연소 시의원에 출마하였을 당시 슈퍼맨이라는 슬로건을 착안하여 돌아온 슈퍼맨이라는 뜻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결정하게 됐다.

30대 초반,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슈퍼맨 박종열은 아직도 험기 왕성한 청년이다.

젊은 도의원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패기 넘치는 선거사무원들과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삶에 지친 익산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즐거운 퍼포먼스로 활기찬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소통·화합분위기 만들겠다”

기호3번 국민의당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이하 박 후보)는 “소통과 화합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일 정 후보는 “공무원들은 익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자입니다”며 “반드시 시장에 당선되어 전 직원들이 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공개적인 대화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는 “시정이 발전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유성엽 후보,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강화 필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는 1일 월남전 참전용사 등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이 길고 검증 절차 지연에 따라 지원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차별된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도 고엽제후유증 환자 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입법 활동에 적극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홍호 후보, “우리 삶 바꿔줄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이홍호 후보(임실순창남원)는 1일 순창시장과 임실시장에서 “민선 무능이정에 대한 짝사랑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바꿔줄 정당은 기호3번 국민의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공동체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농정에 대한 무계획 무대책으로 인해 농업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이지만 농업 위기를 방관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실의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 사업, 섬진강 힐링푸드 네트워크 구축,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임실 순창의 고부가 산업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새롭게 거듭나는 임실과 순창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후보, “9군단 부지 완주관 에버랜드 조성”

임정엽 국민의당 완주진안무주정수 후보는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전주 대대(35사단 예비군부대)의 완주군 봉동읍 이점을 반대한다”면서 “옛 9군단(현 35사단 106연대)부지를 완주관 에버랜드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현 35사단 106연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에 종합레저타운을 세워 완주군의 트레일트 마크를 육성하겠다”고 임 후보는 설명했다.

임정엽 후보가 제시한 ‘완주관 에버랜드’는 종합레저타운으로 종합리조트, 전문체육공원, 한옥식 유소스텔 등이 들어서는 종합수련원, 패밀리 호텔,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실내 컨텐츠클러스터, 에코어드벤처 등이 시설된다.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통해 연간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임후보의 구상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서 출정식 가저

조배숙 기호 3번 국민의 당 익산시(을) 국회의원 후보(이하 조 후보)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 선거사무소 인근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본 출정식에는 선거캠프관계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을 비롯해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앞으로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조 후보는 연설차량에 올라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익산 발전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며, “나가는 사람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뭉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과 관록이 있는 중진 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4선의 힘이 곧 익산의 힘입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조 후보는 ▶병풍식품클러스터 구축 및 국내외 식품산업박람회 개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 ▶보사마을 및 보석가공 연관산업 유치로 보석산업 활성화 ▶생면산업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정비 등 대표 공약사항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다.

조 후보는 “이번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고, 무너진 호남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라며 다시한번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